

이지네트웍스가 공기청정기 '에코버'를 CES 'AI 전용관'에서 선보인 이유

✎ 조득진 기자 | Ⓞ 승인 2026.01.16 06:00

인공지능 공기질 관리 솔루션 '에코버' 전격 공개
자율형 공기정화 기술에 글로벌 바이어들 큰 관심
美 대형 체육시설 정조준...조명 기업과 '파트너십'



CES 2026 North Hall(노스홀) AI 전용관에 설치한 이지네트웍스 '에코버' 부스 [사진 이지네트웍스]



CES 2026 North Hall(노스홀) AI 전용관에 설치한 이지네트웍스 '에코버' 부스 [사진 이지네트웍스]

이지네트웍스가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26에서 독자적인 인공지능 공기질 관리 솔루션 '에코버(ecover)'를 전격 공개하며 글로벌 바이어들의 주목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일반 가전관이 아닌 올해 가장 혁신적인 기술들이 집결한 North Hall(노스홀) AI 전용관에 부스를 마련하면서 관련 산업에 대한 비전을 확실하게 보여주었다는 평가다.

이지네트웍스가 에코버를 가전관이 아닌 AI 전용관에서 선보인 것은 에코버 솔루션이 단순한 공기청정기를 넘어선 'AI 데이터 플랫폼'이기 때문이다.

에코버의 통합 솔루션은 수만 개의 센서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해 공간의 인원 밀집도와 오염 패턴을 예측·가동하는 고도화된 AI 알고리즘을 탑재했다. '실시간 통합모니터링 및 원격제어시스템'으로, 수백 대의 기기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이다. 전시장을 찾은 글로벌 테크 관계자들이 에코버의 자율형 공기정화 기술에 큰 관심을 보인 이유다.

이지네트웍스는 이번 전시회에서 미국의 대형 체육시설 전문 조명업체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했다고 밝혔다. 대규모 실내 경기장 및 스포츠센터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조명-공기청정 통합 시스템'을 양사가 공동으로 개발한다는 내용이다.

에코버 관계자는 "체육시설 천장에 설치하는 대형 고풍도 조명 설비에 에코버의 공기 살균 및 청정 모듈을 결합하는 방식"이라며 "별도의 설치 공간 없이 기존 조명 인프라를 활용한 공기 관리로 '공간 효율성', 경기장 조명시스템과 연동해 관람객 수에 따라 청정 강도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스마트 제어', 통합 제어시스템을 통해 전력 소비를 효율화하는 '에너지 절감'이 공동개발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형 체육시설 조명업체와의 협업 소식이 알려지면서,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경기장이거나 대형 로비를 보유한 북미 현지 바이어들의 상담 예약이 폭주하고 있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대공간 청정의 절대강자 '에코버' 시리즈 선봬

CES 2026에 참가한 이지네트웍스 임직원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이지네트웍스]

이지네트웍스 부스에 전시한 제품들은 대규모 다중이용시설에 특화됐다. 단순히 먼지를 걸러내는 기존 공기청정기의 한계를 넘어 강력한 살균기능을 결합한 '올인원(All-in-One)필터 시스템'과 실시간으로 공기질을 관리하는 중앙관제시스템을 결합했다.

60평형부터 100평형 이상을 커버하는 대형 공기청정살균기는 강력한 풍량과 저소음 설계를 동시에 구현했다. 넓은 면적의 오염된 공기를 빠르게 흡입하고 정화된 공기를 멀리까지 내보내는 독보적인 공기순환기술력을 탑재했다. 버스형 공기청정 살균기도 선보였다.

특히 단순한 하드웨어 제조를 넘어 AI와 이종 산업(조명)과의 결합을 시도한 이지네트웍스의 행보는 CES 2026에서 한국 중소기업이 나아가야 할 혁신적인 수출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박관병 이지네트웍스 대표는 "AI 기술의 메카인 North Hall에서 에코버의 기술력을 선보이게 되어 뜻깊다"며 "미국 현지 파트너사와의 협업을 통해 북미 대형 스타디움과 공공시설 시장에 에코버 솔루션을 빠르게 확산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네트웍스는 지난 2000년에 설립한 종합 서비스 업체로, IT 장비 렌탈부터 친환경 공기질 관리, 디지털 헬스케어 등 분야로 사업을 확장했다. 대표 브랜드 '에코버'는 다중이용시설·공공기관 등 다양한 환경에서 미세먼지와 유해 물질을 제거해 쾌적한 실내 공기를 제공하는 공기청정 솔루션이다. 이와 함께 공기청정기·살균기·순환기·필터 등 생산부터 유지보수까지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며,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통한 안정적인 품질과 신뢰를 쌓아오고 있다.



조득진 기자

저작권자 © G밸리타임스(지밸리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